

저자 약력

네드 카우프만(Ned Kaufman)

예일 대학교(Yale University)에서 건축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뉴욕에 있는 카우프만 유산보존(Kaufman Heritage Conservation)의 회장이며 미국 NYU 프랫 인스티튜트(Pratt Institute)의 문화재학과 겸임교수로 재임 중이다. 대표 출판물: 『장소, 경기 그리고 역사: 사적 보존의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에세이(2009)』, 『압력과 왜곡: 건설자와 비평가로서의 도시거주자(2011)』 등. 관심 분야: 유적과 사회 정의; 유적과 21세기 대도시들; 유적과 기온 변화; 무형유산. 주요 활동: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아퐁테스(*Apuntes: Revista de Estudios sobre Patrimonio Cultural (Bogotá)*)의 편집위원.

마샤 버로스(Marcia Burrowes)

영국 워릭 대학교(University of Warwick)에서 문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버로스 박사는 바베이도스의 케이브힐 서인도제도 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Indies(UWI))의 문화학과 코디네이터 겸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캐리비안 고급 능력 인정 시험(Caribbean Advanced Proficiency Examinations (CAPE))의 캐리비안학 시험감독관장을 역임하고 있다. 그녀는 공연 문화, 전통 가정무도회의 형태 그리고 다른 문화적 실습들을 포함한 캐리비안 아프리카 연속체에 관심을 갖고 있다.

다비드 플로리도-코랄(David Florido-Corr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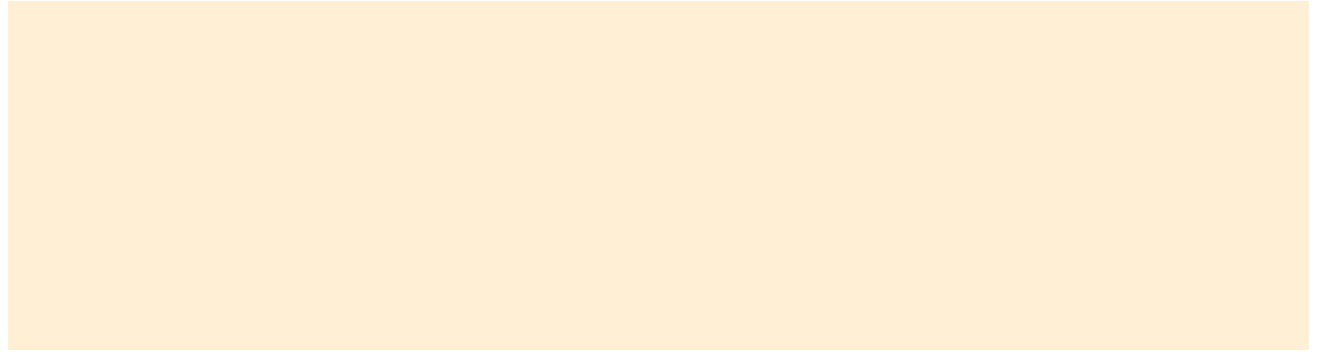
2003년부터 스페인 세비아 대학교(University of Seville) 사회인류학 강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7년 이래로 안달루시아 사회문화 정체성 연구(Socio-cultural Identities Studies in Andalusia)를 위한 공식 연구 기관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사회 인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학위 논문의 제목은 『어업정책 관리에 있어서 국가, 부서별 기관과 지역력: 바베이트(Barbate)와 코닐(Conil) 사례 (카디스, 안달루시아, 스페인)』이며 논문은 두 권의 책으로 출판되었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문화적, 사회-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차원에서의 어업이다. 최근에는 안달루시아 지역의 참치 잡이를 역사적, 사회-문화적 그리고 문화 유산적 관점에서 연구하였다.

문옥표(Moon Okpyo)

교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고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Harvard University)와 일본 오사카 국립 인류학박물관(National Museum of Ethnology)에서 객원 교수를 지냈다. 최근 출판물로 『새 여성: 일본과 한국의 현대 여성의 이미지(2003, 에디터)』, 『양반: 한국의 학자-양반의 삶(2004, 에디터)』, 『일본의 관광과 여행 문화(2009, 기차드-앵귀스(Gichard-Anguis) 공동 저술)』, 그리고 『초기와 후기 현대성에서 소비의 한국 전통: 상업화, 관광 그리고 퍼포먼스(2011, 공동 저술)』 등이 있다. opmoon@aks.ac.kr

벤자민 모리스(Benjamin Morris)

박사는 미시시피 출신의 작가이며 연구원이다. 박사과정 후 최근에는 에든버러 대학교(University of Edinburgh)의 인문학 고등학술연구원(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in the Humanities)에서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연구 분야는 문화 유산과 지리학을 접목시킨 분야이다. 영국 오픈대학교(Open University)의 지리 및 환경 연구 오픈스페이스센터(OpenSpace Centre for Geographical and Environmental Research)의 구성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http://benjaminanmorris.com>.



데이비드 호웰(David Howell)

뉴포트 웨일즈 대학교 사학과 강사로 재직 중이다. 현재 연구는 국가 유산 자원에 대한 웨일즈의 정치적 퇴행의 영향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남동 웨일즈의 전통인 마리 루이드(Mari Lwyd)의 재생에 영향력 있는 참가자로 활동하는 등 웨일즈의 무형문화유산의 증진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재니스 컴버배치(Janice Cumberbatch)

바베이도스 서인도제도대학교(University of the West Indies)의 자원관리 및 환경연구센터(Centre for Resource Management and Environmental Studies(CERMES))의 강사로 재직 중이다. 그녀는 참여적 계획 박사, 환경학 석사 그리고 사회 과학으로 학사 학위를 받았다. 자원관리와 환경연구센터 (CERMES)에서 일하기 전에는 사회적, 환경적 영향 평가와 사회적 조사 분야를 위한 개인 컨설팅 회사인 사회 환경 관리 서비스 주식회사 (Social and Environmental Management Services Inc. (SEMS))의 창시자이며 이사로 활동했었다.

카트리나 J. 하인즈(Catrina J. Hinds)

전통문화유산에 열정을 가진 바베이도스 시민이다. 최근 바베이도스 서인도제도대학교 케이브힐 캠퍼스에서 천연자원 및 환경관리(Natural Resource and Environmental Management)학과에서 해안과 해양 자원 관리분야의 전문가로 석사 학위를 받았다. 논문의 주제는 바베이도스의 국가 아이콘인 날치(flying fish)를 다루고 있다.

수미코 사라이시마(Sumiko Sarashima)

일본 외무부에서의 연구 경험을 통해 일본의 문화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을 쌓았고 더불어 비영리단체 NPOs(National Performance Offices)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 그녀는 2013년 1월 영국 런던대학교(University College London)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논문의 제목은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빙가타(Bingata), 오키나와의 전통 염색 직물」이다.

브리타 루돌프(Britta Rudolff)

독일 코트부스 지역의 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교(Brandenburg University of Technology)의 문화유산관리위원회의 의장이며 세계유산학 국제 석사 과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독일 코트부스의 문화유산관리위원회(Institute for Heritage Management)와 바레인에 거점을 두고 있는 씩크헤리티지!(Think Heritage!)의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관심 분야는 유네스코 세계유산협약과 무형문화유산협약이며 종교와 의례에 있어 문화유산의 표현에 특별히 관심이 있다.

수잔 레이먼드(Susanne Raymond)

최근 독일 코트부스의 브란덴부르크 공과대학교(Brandenburg University)에서 세계 유산학을 졸업하였다. 석사 논문은 어떻게 '자유, 사전 통보 동의'의 원칙이 세계 유산 지명 과정에 통합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녀는 현재 독일 베를린의 IBO 세계학교에서 문화유산과 보존 에듀케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susanneraymond@yahoo.de

레이 호웰(Ray Howell)

영국 뉴포트 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Wales)의 웨일즈 고대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웨일즈 대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역사 및 학제간 연구 사우스 웨일즈 센터(South Wales Centre for Historical and 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2009년 『남동 웨일즈의 철기 시대 실루아인을 찾아서』를 비롯한 다양한 저서를 발간하였다. 그는 5권으로 구성 된 『켄트주역사 (Gwent County History)』의 1권과 2권의 편집장을 역임하였고, 『국제저널 셀틱 연구(the international journal Studia Celtica)』의 예술, 고고학 편집장으로 활동함과 동시에 『남부 웨일즈 기록 사회(the South Wales Record Society)』의 편집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다.

매트 칠코트(Matt Chilcott)

뉴포트에 있는 웨일즈 대학교(University of Wales)에서 파견근무를 나와 디지털 관광, 해석과 CMC2 Community Interest Company 통합을 위한 개발 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그는 글래모건 대학교(University of Glamorgan)의 조지 이와트 에반스 민담센터 (George Ewart Evans Centre for Storytelling)에서 박사 연구를 하면서 디지털 연구 방법을 부분적으로 응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영국 연구재단인 공학 및 자연 과학 연구재단(The Engineering and Physical Sciences Research Council (EPSRC))의 디지털 경제: 공동체 그리고 문화 네트워크, 그리고 웨일즈 방문 디지털 관광 사업 체제 프로그램의 운영 위원회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캐롤라인 조엘 느와부예즈(Caroline Joelle Nwabueze)

이태리의 토리노 대학교(University of Torino) 지적 재산학부를 졸업하고, 한국의 한동 국제 법률 대학원(Handong International Law School)에서 수학했으며 프랑스 난테스 대학교(Nantes University France)에서 기초인권에 대한 석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는 지적 재산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다. 그녀는 간과되어 왔던 공동체의 발전 역량을 증강시키기 위한 기제로 국제 법률 구조의 사용을 옹호하는 법과 발전 분야의 전문가이다. 현재 스위스 베른 대학교(Bern University)에서 법학으로 박사과정을 수료 중에 있다.